

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8. 3. 21.

금융위원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말씀

□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
□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쏠 업권에 대한 관리 노력*을 지속

* 가계부채 종합대책('17.10월),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('17.11월), 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,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('18.1월) 등

□ 얼마 전 발표된 '17년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8.1% 증가한 1,450.9조원으로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됨

❶ '17년 가계신용 증가율(8.1%)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*(8.2%)를 달성하였으며,

* 과거 10년간('05~'14년, 가계부채가 급증한 '15~'16년 제외) 연평균 증가율

❷ 연중 증가규모도 '16년 대비 △31조원이나 감소한 108.4조원으로 '14년(+66.2조원) 이후 최저 수준임

❸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*(상호금융, 저축은행, 신탁 등)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'16년 대비 모두 감소

* 가계대출 증가규모 / 증가율(조원/%) :

은행 : ('16) 53.7 / 9.5 ('17) 43.3 / 7.0, 비은행 : ('16) 42.6 / 17.1 ('17) 22.6 / 7.8

□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'16년 대비 +8.7조원 증가하였으나, 이를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로 보기는 어려움

○ 실제, “은행·비은행예금취급기관”의 기타대출 증가규모는 '16년 대비 △7.9조원 감소(증가율 : △3.6%p) 하였음

□ 이 자리를 빌려,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쏠 업권이 보여준 그 동안의 관리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
2 '18년 리스크 요인 점검

□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그리고 확고하게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함

○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처분 소득 증가세를 넘어서고,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*

*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('16년)이 95.6%로 OECD 평균(70%)을 상회

□ 특히, '18년 여건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

❶ 금년 하반기에 DSR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

-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력 확대,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낮은 금리차* 등으로 신용대출 활용 유인이 높은 상황임

* '17.6월 이후 5대은행 신용대출과 주담대 금리차(우량차주)는 0.2%p 이하 수준

❷ 개인사업자대출*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

* 전년동기대비 증감액/증감률(조원/%, 은행권) : ('18.1) +28.0/10.7 (2) +28.8/10.9

- 특히, 상업용부동산은 임대수입 외에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률*도 높아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지속될 전망

* 평균 투자수익률(% , '17년) : (오피스) 6.44, (상가) 6.32~6.71 (국고채 3년) 2.1

❸ 이와함께,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

- 한은에 따르면, 대출금리가 1%p 상승할 때, 채무상환부담(DSR)이 5%p 이상 늘어나는 대출의 12%를 취약차주가 보유

➡ 따라서,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,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

① 앞으로, 가계부채 종합대책, 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

①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(은행 3월, 비은행 7월)을 실시하고,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

- 각 금융권에서는 고객 데이터 분석, 자체모형 구축 등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
- 특히, 시범운영기간에 축적된 데이터가 향후 도입 예정인 관리지표*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, 시범운영기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람

*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“高DSR 대출비중”을 “일정비율 이내”로 유지

② 다음주(3.26일)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 라인을 시행하여,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

- 개인사업자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대출형태와 담보물건 등이 다양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시 금융회사에 상당한 재량과 제도적 유연성*을 부여하였음

* (예) RTI(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) 기준에 미달된 대출도 금융회사의 재심사 후 취급 가능

- 따라서, 금융권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관리의 성패가 금융회사의 관리역량과 정교한 제도운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
- 창구직원 교육, 일선창구의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람

③ 4월중으로 쏙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"약정금리 + 최대 3%p" 수준으로 인하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

- 금융권에서는 연체금리 인하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, 고객 안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,
- 이미 시행 중인 담보권 실행유예제도 등의 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이 소극적으로 운영*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

* (예) 담보권 실행유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 등

② 또한,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·운영해 나가겠음

- 금융위·금감원·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「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」는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,
- 「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」를 신설·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

③ 마지막으로, 주담대 규제회피목적 등의 신용대출 취급,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,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

- 따라서, 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
- 특히, 제도 시행초기(3.26일)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,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람

4 마무리 말씀

-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쏠 업권이 보여준 그 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
-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된 것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

□ 그러나, '17년도의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됨

-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
-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